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397면 (C해)
제1독서 : 창 세	18, 1-10a
제2독서 : 골 로	1, 24-28
복 음 : 루 가	10, 38-42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실상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루가 10, 42).

□ 강 련



동중정(動中靜)

한 기 호 신부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던 중 마르타와 마리아 두 자매 집을 방문하신 내용이 나온다. 이 두 자매는 가장 존귀한 분을 모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에 성실성의껏 주님을 모시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 두 처녀는 예수님을 잘 모시겠다는 마음은 동일하나 그분을 모시는 방법과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온 정신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언니 마르타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집안을 치우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마르타의 모습은 모처럼 본당신부의 교우들 가정방문 시에도 흔히 볼 수 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기도 바치고 좀 앉아서 대화를 나누려다 보면 금방. 있었던 분이 온데간데 없다. 재빠르게 가게로 부엌으로...

예수께서는 결국 마르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라고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남겨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마르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행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복음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많은 일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어느때고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입을 가졌을 때는 항상 들을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셨으니 그 나라와 그의(義)를 구하며 (LK 12, 22-31) 기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발치아래 -점손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생활이, 시간이 바쁘고 시달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의 삶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말씀을 떠난 생활이 계속되기에 기쁨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고 기도를 하지 않기에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는 찌그러진 신앙인이 아니었던가?

(무주천주교회)



시청료 시비

-조삼모사?

옛날 중국 송나라에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다. 그는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노라고 한즉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말을 바꾸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고 하였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들은 이를 일러 조삼모사(朝三暮四)라 하며, 이는 말을 교묘하게 하여 '간사한 꾀로 남을 속이어서 농락함'을 이르는 말로 쓰고 있다.

조삼모사는 어찌보면 말장난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 방송공사가 시청료에 대한 홍보를 하는 내용을 보노라면 문득 말장난이 연상된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시청료가 면제된다. -글쎄, 생활보호 대상자가 칼라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물리지 않는데... 가정용은 세대별로 1대분만 징수한다. -가정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2대 이상 지니고 있다면 보통 시민은 넘겠는데... (그건 우리네 사정아 아니잖어?). 일본은 1년 시청료가 6만 2천4백원이다. -우리는 1년 시청료가 3만원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5배나 높아서 오히려 우리 부담액의 반절도 안되겠는데... 방송공사의 이야기를 끝이끝대로 들다보면 원숭이풀 당하기 십상이다.

방송공사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영방송은 재원이 특정한(집단)에게 예속되면 이의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의 전 수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영방송제도를 택하는한 시청료 제도도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말인즉슨 이 이야기다.

그러나 시청료를 못내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방송의 공정모드를 촉구하는데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자문위원 숫자만 늘인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보도의 공정성이 문제다!

숲 정 이 산책



□평신도 논단

주일학교 운영에 문제 있다

—어린이에게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유 경 환

“엄마, 내가 죄인이라...”

교회에서 돌아온 어린이가 하는 말이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생각없이 어린이들에게 입을 연다. 생각없이 말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나이와 맞는 의식수준을 간과 한다는 지적이 된다.

어린이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지은 죄를 꼼꼼히 짚어본다. 개미를 짓밟았던 일, 동무와 다투었던 일..., 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죄의식이라는 것은 거짓 이 정도인 것이다. 이런 의식수준에다 교리문답이나 기도문에 들어있는 '죄인'이라는 어휘를 그대로 강론하는 경우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짚어 봐야 한다.

교회는 적어도 어린이에게만은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즐겁다는 표현은 다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다. 주일이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보다 앞서 괴이는 상태, 또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히 놓이는 상태, 또는 일가친척이나 떨어져 살고있는 또래들을 만나보는 반가운 마음 상태..., 그런데 어린이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주입식으로 부어주면 교회가 두려운 곳이라

무서운 곳으로 생각되기 쉽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상의 어휘를 제대로 수용하려면 상당한 인생체험이 요청된다. 인간은 비록 어린이라 하여도 그 비어있는 듯 여겨지는 가슴에 활자화되어 있는 교리를 부어주기만 하면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감동과 설득과 그리고 젖어드는 믿음에 의해서 사람다워지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믿음의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해줘야 할 것은, 사람의 착한 마음자리를 넓혀줘야 할 일이다. 크면서 이 마음자리가 더럽혀지는 갖가지 시련을 겪게 된다. 비정과 부정의 도전에 나서게 된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바탕이 주춧돌이어야, 모퉁이 돌을 바로 놓을 수 있다. 집짓는 이가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될 것을 바란다면 마음자리가 먼저 고르게 사랑으로 다져져야 할 일이다.

주일학교는 유아세례자들을 모아 놓고 실성을 교회법으로 가둬두는 곳이 아니다. 그것을 바로고 착하게 길러주는 곳이어야 한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성서교설 ㉞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루가 10:42)

성서를 읽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 기사(記事) 내용은 정문(正文)상, 해석(解釋)상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와의 부단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목의 내용이 쓰여졌다고 하나, 이것은 너무나 기교적이다.

교황 그레고리는 이 내용에 「활동생활」(비바 악터바)과 「관상생활」(비바 폰넨플라터바)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활동생활은 자신과 함께 사라진다. 누구나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은 영원의 나라에서 누가 배고픈 자에 빵을 주겠는가? 누구나 죽지 않을 곳에서 누가 죽은자를 장사지내겠는가? 관상생활은 처음부터 여기서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연옥의 지상천국에 있어서 활동을 의미하는 마지르다가 꽃을 따고, 관상을 의미하는 베아트리체는 거울 앞에 있다(연옥 편 100~108). 구약의 레아와 타겔은 신약의 마르타와 마리아에 상응하고 있다(창세 29장).

「활동」이나 「관상」이나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인데 이것은 단지 신도가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을 듣는 것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성서원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명상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예수가 했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외에 자기로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 오직 믿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전지전능, 전애, 전의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상응하고, 또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모든 백성에서 큰 기쁨이 될 소식」(루가 2:10)에 상응한 것이다.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제 일 안 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여러
분께 염가봉사
전주 전통성당 사거리
(신호동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아나

희소식!

독사뱀 물린사람 전문 치료
할. 五代째

연락처: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㉞㉟㊱번차

전화 ㉞ 3 5 4 4
송 준 의(발라바)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의원

신라당 ○ | | ○ 오거리
팔달로 ← | → | 조흥은행
○ 주력 은행 ↑ | ○ 조흥은행
김종환치과의원 | |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교 구 소 식

1. 재정참사회 : 21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마리아블리 86 : 21일 오후 8시~27일 오후 4시30분까지, 장소-서강대학교
대상-고등학생 이상, 회비-일반 24,000원, 고등학생-21,000원
3. 은혜의밤 단식 철야기도회 : 25일 밤 11시~새벽 4시까지, 가르침-이수현 신부
4. 전주교구 성령채신 봉사자 교육 : 25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령채신 사무실 3층
5. 전주지구협의회 재속형제회 성지순례 : 25일, 장소-천호성지
대상-전주지구 협의회 산하 각 형제회 재속형제회 전체
준비물-도시락·기도서·성가집 (미사 있음)
6. M·B·W 기초 공동체 코스 : 8월 6일 오후 4시~9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참가비-25,000원, 대상-수도자·교리교사·사무원
및 일반 남녀, 신청마감-7월 24일까지 교육국(5-0041)
7.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형제를 초대합니다
남자 고등학생-25일~27일 (2박3일), 참가비-3천원
대학·일반인(남)-8월 7일~10일 (3박4일), 참가비-5천원, 장소-경남 산청 성심원
연락처 : 100 서울 중구 정동 17번자 프란치스코수도회 성소담당자
(02)753-4637·753-4690
8. '86 제2차 기사 교육실시 : 8월 1일 14시~3일 14시, 장소-광주 명상의 집
대상-간부 및 간부후보자, 참가비-32,000원(교통비 포함)
교통안내-8월 1일 14시 정각 전동성당에서 출발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84 : 1~7 복음 : 루가 12 : 35~40

♣ 잡 관 !

M. B. W 기초공동체 묵상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사는 것이어야 한다. 공의회가 끝난지 어언 20여년, 과연 우리 교회는 공의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단적으로 공의회 덕분에(?) 외적인 변화를 많이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내적인 변화, 내적인 쇄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를 새롭게 보고, 새로운 내적채신으로 교회공동체를 체험해 보기 위한 분들을 위해 묵상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교구 M. B. W 주진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24일까지 교구청 교육국에 신청을 바라면서 뜨거운 여름 열기만큼이나 신앙의 생동감을 새롭게 기대해 본다.

많은 이용을...

교구청 홍보국에서는 Video Film과 Slide Film을 다량으로 구입, 시청을 위한 대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Film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주일학교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성인들을 위해서도 성서, 성인전, 전례, 묵상용 등(Video Film, 영화 Film, Slide Film) 좋은 Film들을 새로이 구입 비치했다. 본당단위, 단체단위는 물론 가정이나 개인도 대여가 가능하다.

요십이 (676) 김병오



영지, 영지, 영지

맑고 신선한 계곡 상판에서 월북 영지버섯과 자연생 영지버섯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양주대(노렌조)
대환(요셉)
82-5275
차량대기, 배달가능
원주군 상관면 의암리 소대판

-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 특수 파티복 |
- * 고급 침구류 |
- * 각종 솜 일체 |
- * 커벤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신축 이전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 앞)

☎ 병원 4-1225 자택 4-9886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산부인과전문의 황 수 경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 감사합니다 :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단체와 여러 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 온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2.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21일~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12시까지, 등록금-1인당 500원씩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3. 중·고등학생 하기캠프 : 28일~30일까지 장소-고산 남봉수영장, 참가비-1인당 3천원씩 준비교육-23일~27일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5. 사목회 상임위원회 : 24일 저녁 8시
- 6.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7. 성지순례 봉사단 : 27일 8시, 현지답사 출발 수고해 주세요
- 8. 세대별 신자카드 : 각구역장님께서는 빠진 가정의 카드를 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9. 구역봉사자 모임 : 31일 목요일 미사후에 있겠습니다
- 10. 유아영세식 : 26일 오후 3시 대부모님들을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 11. 교무금 납부의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12. 공소 순회미사 : 26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 13. 금주전례 : 해설-박종주, 독서 봉헌-이태영 부부 신자기도-김환창 부부, 촛불봉헌-이태환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종관, 독서 봉헌-조홍기 부부 신자기도-박상규 부부, 촛불봉헌-전태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본당-583,215원 아파트-181,760원 교무금 : 본당-339,300원, 아파트 263,000원 신축금 : 428,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2-5238

- 1. 사목회 : 다음주일
- 2. 첫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4시
- 3.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 21~26일 오전 9~12시, 교재-300원
- 4.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에게 T샤스 : 협조바랍니다
- 5. 전주교구 학생회(중·고) 하기사수련회 : 28일~30일
- 6. 반회장 회의 : 23일 10시30분
- 7. 병자봉성체 : 24일 오후
- 8. 유아세례 : 26일 오후 7시30분
- 9. 주민등록등본 제출(전신자) : 31일까지
- 10. 재속형제회 : 다음주일 오후 2시
- 11. 중·고등 하계특별교리 : 19~27일 오후 4시
- 12. 금주전례 : 해설-황관금, 독서-①김성원 ②이기배 봉헌-이정호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장동주 ②이갑진 봉헌-박상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63,400원 교무금 : 386,2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절 우

- 사무장 이취임식
신임 사무장-김원준 수고하시겠습니다
전 사무장-김철규 수고하셨습니다
- 1. 중고 하기사수련회 : 24일~26일, 압록
- 2. 우정의날(30일) : 쉬는 형제를 위한 기도이날

- 3. 예비자를 봉헌하신 분 : 영세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 4. 평일미사에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5. 숲정이 은인을 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27,890원 교무금 : 23,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감 덕 창
사무실 "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유아세례식 : 24일 오후 2시
- 2.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3. 사제양성후원금 신입자 : 하늘의 문pr·김미카엘라-1구좌, 김배근-2구좌, 이양환-1만원
- 4. 김실 구입헌금 : 바다의별pr-1만2천원, 태복래-1만원, 이양환-1만원, 평화의모후pr-1만원
- 5.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 본당-21일부터 25일까지 2성당-28일부터 8월1일까지 있으니 자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6. 축! 첫영성체 : 본당어린이 영세 24명, 첫영성체 40명
- 7. 2성당 성인 예비자교리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8. 금주봉헌 : 본당-김한기 부부, 2성당-오수환 부부
차주봉헌 : 본당-장현주 부부, 2성당-송남용 부부
- 9. 차주전례
본당 : 해설-남정호, 독서-①이정빈 ②김태수
2성당 : 해설-문치구, 독서-①김광택 ②오수환
- 지난주 봉헌금 : 본당-296,080원, 2성당-136,730원
계-432,810원 교무금 : 156,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 1. 성화회 : 공식미사 후
- 2. 울드레아 : 공식미사 후
- 3. 레지아 : 오늘 오후 2시
- 4. 주일학교 하계교리 : 21일~26일 방학교리책 판매-300원
주일학교 수련회 : 26일~28일
- 5. 중·고생 하계캠프 : 28일~30일 (2박3일)
신청기간-13일~20일, 접수처-주일학교 2층 중·고교무실
중·고생 하계캠프 6일기도(하계 특별교리)
21일~26일(오후 3시30분), 장소-소강당
- 6. 감사 : 이마리아(50만원)-스테인드글레스 매금
- ※ 다음주일은 50주년 기념사업 특별헌금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읍시다
- 지난주 봉헌금 : 1,127,150원 교무금 : 562,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 21일~25일 오전 8시30분
- 2. 중·고학생 여름캠프 : 28일~30일
- 3. 오늘모임 : ①울드레아 야외모임 ②성모회
- 4. 은혜의밤(철야기도회) : 25일 밤 11시
- 5. 예비신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30,020원 교무금 : 698,000원